

영어 SMS 약어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

강석근** · 양선기***

(원광대학교 · 순천대학교)

Kang, Seok-keun & Yang, Seon-ki. (2015). A Morphological Analysis of English SMS abbrevia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2), 37-5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English abbreviations that are currently used in text messaging and online chat, and to provide a morphological account of them. To this end, we collected 1159 data with morphological properties from five online dictionaries and five websites/blogs, and analyzed them by the processes by which they were 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92.49% of all the data were initialisms. Compared with initialism, word-formational processes such as blending, clipping, onomatopoeia etc. were relatively infrequently used to make SMS abbreviations. Clipped words accounted for only 4.06% (47 words) of the collected data, which was followed by onomatopoeia/mimetic words (0.69%), symbols (0.51%) and blends (0.43%). This analysis shows a rather different result from previous analyses (Kumar 2012; Anjaneyulu 2013).

주제어(Key Words): 두문자어(initialism), 절단법(clipping), 혼성법(blending), 의성어(onomatopoeia), 의태어(mimetic word), SMS 약어(SMS abbreviations)

1. 머리말

SMS는 Short Message Service의 약어(abbreviation)로 휴대전화, 웹(Web) 또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Wikipedia).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 SMS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SMS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용자들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SMS 상에서 수많은 약어들이 사용되고 있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제1저자

*** 교신저자

는데 이는 한국어나 영어 모두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불금’은 ‘불같은 금요일’을 의미하고, 영어의 경우 ‘asap’는 ‘as soon as possible’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어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용자의 연령, 성별, 직업, 나이에 관계없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YouTube 상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YOLO, man!”이라고 끝맺음 말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YOLO는 ‘You only live once’를 의미하는 것이다. 약어 사용의 보편성은 GR8 ‘great’, RUOK ‘Are you OK?’와 같은 약어들이 Oxford Dictionary(신판)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약어의 사용은 아주 보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어를 제대로 알지 못 한다면 상대방이 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거나 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SMS상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다양한 약어들을 조사하고, 이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형태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자료의 조사 방법과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조사된 자료들이 보이는 주된 형태론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가 지니는 사회적, 학문적 의의에 대해서 논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아래 주어진 사전들과 네이버 블로그/카페에서 수집하였다.

(1) 사전:

<http://www.acronymfinder.com/>
<http://www.urbandictionary.com/>
<http://www.noslang.com/>
<http://www.onelook.com/>
<https://www.wordnik.com/>

(2) 네이버 블로그/카페:

<http://blog.naver.com/parangbee/80171876316>
<http://blog.naver.com/hkd333/203539831>
<http://cafe.naver.com/listeningenglish/10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docId=>

59023906&qb=Ym5zY2Q=&enc=utf8§ion=kin.qna&rank=1&search_sort=0&spq=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docId=167994581&qb=YWJpdGhpd3RpZGI=&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5vLIw35Y7tVssc1s6o8ssssssto-464716&sid=VDN6r3JvL CQAADC1GcQ

위 출처에서 수집한 자료의 수는 총 1,666개이다. 수집된 자료들을 논의의 목적을 위해 언어학적 특성에 따라 크게 형태론과 음운론으로 분류하였는데, 총 1,666개 중에 형태론적 특성을 지닌 것은 1,159개로 69.57%를 차지하였고, 음운론적 특성을 가진 것은 487개로 29.22%를 차지하였다. 그 나머지 20개(1.2%)의 자료들은 형태론이나 음운론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면 관계상 음운론적 특성을 보이는 487 개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¹⁾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형태론적 특성을 보이는 자료들을 그들이 나타내는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약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gj'('good job')과 같은 두문자어(Acronym)로 92.49%인 1,072 개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pic'('picture')와 같은 절단법(Clipping)으로 총 47개(4.06%)였으며, 의성어/의태어(Onomatopoeia/Mimetic Word)가 8개(0.69%), 기호(Symbol)가 6개(0.51%), 혼성법(Blending)이 5개(0.4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외에도 은유법(Metaphor), 숫자발음(number pronunciation), 전환(Conversion), 철자의 수(number of alphabet)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수는 아주 미미하였다.

이 통계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Kumar (2012)는 2007-2011년 사이 4년간 수집한 306개의 약어를 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음성 축약(phonetic contraction)이 185개(60.45%)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탈락(omissions) 59개(19.28%), 절단법 43개(14.05%), 두문자어 10개(3.27%), 기호 9개(2.94%)로 나타났다. 이들 중 형태론과 관련된 절단법과 두문자어는 총 53개 (17.32%)에 불과하며, 이 둘을 비교해보면 SMS 약어에서 두문자어보다 절단법이 4.3 배나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Kumar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Anjaneyulu (2013)는 2006-2011년 사이 5년간 968개의 약어를 수집하여 5개의 범주로 분류한 결과, 두문자어 및 절단 798개(82.43%), 철자 동음어(letter homophone) 16개(1.65%), 숫자 동음어 (number homophone) 19개 (1.96%), 철자숫자 동음어(alphanumeric homophone) 113개 (11.67%), 상징 22개(2.27%)로 나타났다. 형태론적 특성을 보이는 두문자어와 절단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통계분

1) SMS 영어 표현들이 갖고 있는 음운론적 특성은 현재 준비 중인 Kang & Yang (in preparation)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석과 차이를 보인다.

다음 3장에서는 SMS 영어 표현들이 보이는 주된 형태론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형태론적 분석

3.1 두문자어(Initialism)

두문자어란 낱말의 머리글자를 모아서 만든 준말을 의미하는데²⁾, SMS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두문자어이다.³⁾ 이러한 두문자어는 (3)에서처럼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4)에서처럼 한 문장이나 구를 나타내기도 한다.

- (3) g = grin, gee n = no
 q = question s = smile
- (4) asap = as soon as possible
 bbfn = bye bye for now
 bbt = be back tomorrow
 bbsl = be back sooner or later
 btw = by the way
 cya = see you later
 gn = good night
 gl = good luck
 gj = good job
 gmab = give me a break
 cbasap = call back as soon as possible.
 cyrtp = can you repeat that, please
 deti = don't even think it

2) Plag (2003), Scalise (1984), Carstairs-McCarthy (2002) 참조.

3) 두문자어를 나타내는 용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acronym과 initialism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acronym은 발음 가능한 철자로 구성된 단어들로 예를 들면, 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RAM(random access memory)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initialism은 acronym과 달리 철자를 하나하나 발음하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면,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NT(trinitrotoluene)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acronym과 initialism을 구별하지 않고 편의상 같은 그룹으로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두문자어의 사용은 (3), (4)에서 본 것처럼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철자 발음을 사용하여 두문자어를 만드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5)에서 *you*는 *u*, *are*는 *r*, *see*는 *c*로 각각 발음이 같은 철자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낸다.

- (5) *aukm* = *are you kidding me?*
hru = *how are you?*
oic = *oh, I see.*

철자발음 외에 숫자를 사용하여 두문자어를 만들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6) *b4n* = *bye for now*
j4g = *just for giggles, just for grins*
tc4u = *too cool for you*
f2f = *face to face*
n2m = *not to mention, not too much*
n2n = *nice to know*
u2 = *you too*
h2e = *have to eat*
n1 = *nice one*
14aa41 = *one for all and all for one*
i8 = *I ate*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문자어를 만드는데 있어서 숫자가 발음이 같은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기능어(function word)를 대신하고 있다. 예를 들면, *b4n*, *f2f*에서 숫자 4와 2가 각각 전치사인 *for*와 *to*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i8*의 경우처럼 숫자가 내용어(content word)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런 예는 상대적으로 흔치 않은데 이는 숫자가 나타낼 수 있는 내용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숫자는 2와 4인데 이는 이들이 나타낼 수 있는 해당 단어들의 사용 빈도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동음이의어의 경우 같은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한다(예를 들면, *1* = *one/won*; *2* = *to/too/two*; *4* = *for/four*).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MS 영어표현에서 숫자가 한 단어를 대신하여 빈번히 사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어의 일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7) a. 2day = today 2nite = tonight
 b4 = before 4ever = forever
 2some = twosome 3some = threesome
 b. gr8 = great ilbl8 = I'll be late
 cul8r = see you later 10Q = thank you

(7a)는 숫자가 단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음절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2day에서는 2가 today의 첫 음절 to-를 나타내고 있으며, b4는 4가 before의 두 번째 음절 -fore를 대신하고 있다. 반면에, (7b)의 예에서는 숫자가 음절의 일부만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cul8r의 경우 8은 late의 일부인 -ate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0Q인데 이 경우는 10이 thank.you⁴⁾가 than.kyou로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 되고 난 이후 첫 음절인 than-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예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숫자가 한 단어를 나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숫자가 단어의 한 음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될 때도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숫자는 2와 4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숫자가 그와 발음이 같은 단어나 음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A3는 anytime, anywhere, anyplace를 나타내며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발음과 상관없이 앞에 주어진 철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3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information이라는 단어 대신에 411이 종종 사용되는데 이 또한 발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411이 사용되는 이유는 전화번호 안내번호인 411의 기능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장에서 하고자 한다.

SMS 영어표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음절의 초성을 사용하여 두문자어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8) a. b/c(bc) = because (cf. bcuz) bb = baby
 c-t = city⁵⁾ vs = versus
 hw = homework jk = joking
 nw = network ol = online

4) “.”는 음절경계를 나타냄.

5) city를 ct가 아니라 c-t처럼 하이픈(hyphen)을 사용하여 표기한 것은 이미 ct가 carat(s), cent(s), centum, certificate, country, court와 같은 단어들의 축약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일종의 저지현상(Blocking)으로 간주될 수 있다(Katamba & Stonhan 2006; Plag 2003; Matthews 1991).

- b. d/l = download(-ing/-ed) d/ced = disconnected
- c. oll = online love nvm = never mind
- dtg = dance together

(8a)에서는 각 음절의 초성들이 결합되어 해당 단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bc는 be.cause에서 첫 음절의 초성 b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c를 결합해서 만든 표현이며, hw는 home.work의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을 따서 만든 표현이다.⁶⁾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동사의 경우 굴절접미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8b)에서 d/l을 보면 이것은 동사원형 download, 현재분사 downloading 그리고 과거분사 downloaded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굴절접미사는 생략된다. 반면에 d/ced (disconnected)처럼 굴절접미사 -ed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SMS 표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굴절접미사의 생략 유무는 임의적(optional)이며, 대화의 맥락으로 보아 굴절접미사의 생략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굴절접미사를 생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8c)에 있는 표현들은 첫 단어 각 음절의 초성들과 두 번째 단어의 초성을 결합해서 만든 것들이다. 예를 들면, online love는 첫 단어 on.line의 음절초성인 o와 l을 두 번째 단어 love의 음절초성인 l과 결합하여 oll로 표현하고, never mind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nvm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단어가 to.ge.ther처럼 2음절 이상일 경우는 dance together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to.ge.ther의 첫 두 음절의 초성인 t와 g만 사용하여 첫 단어인 dance의 초성 d와 결합하여 dtg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뒤에 오는 단어가 2음절 이상일 경우 첫 두음절의 초성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주어진 대화 맥락에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음절의 초성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3.2 절단법(Clipping)

절단법(Clipping)이란 단어에서 하나 이상의 음절을 잘라내고 남은 일부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ad(=advertisement), gym(=gymnasium) 등이 이에 해당하는

6) homework이나 network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성어일 경우 각 구성소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축약형을 만들게 된다. 추가적인 예로는 fe(=forever), od(=overdose), w/e(=whatever), w/o(=without)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첫 음절 첫 글자와 어말음절 전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bday = birthday inet = internet
- rlly/rly = really sry = sorry
- w-end/wkend = weekend

다 (Scalise 1984; Plag 2003). 이러한 절단법은 SMS 영어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단어의 첫 음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다음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⁷⁾

- (9) dis = disrespect hus = husband
 pic = picture re = regarding
 ques = question

(9)의 예들 중에서 특히 pic과 re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들이다. 이러한 절단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단어의 첫 음절이 개음절(open syllable)일 경우는 두 번째 음절의 초성에 있는 자음까지 포함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이다.⁸⁾ 예를 들면, (10)에서 ca.me.ra의 경우 첫 음절인 ca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인 m까지 포함시켜 cam으로 축약형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10)에 있는 다른 모든 예들에도 적용된다.

- (10) cam = camera acc = account
 diff = different fav = favorite
 fem = feminine min = minute
 mob = mobile rem = remember
 tom = tomorrow sec = second
 prob = problem, probable, probably⁹⁾

첫 음절이 폐음절(closed syllable)일 경우는 이미 (9)의 dis.respect, pic.ture와 같은 예들에서 보았듯이 첫 음절이 그대로 사용된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음절의 첫 자음이 첫 음절의 말음과 가능한 음절말 자음군을 형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음절말음 최대화(coda maximization) 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1) comp = computer conv = conversation
 perv = pervert

7) 단어의 첫 두 음절을 축약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emo(=emotion), info(=information), usu(=usually) 등이 있다.

8)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며 re(=regarding)와 같은 예외도 있다.

9) SMS 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표현들이 다의성(polysemy)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하기로 한다.

(11)의 예를 살펴보면, *com.pu.ter*의 경우 두 번째 음절의 첫 자음인 *p*가 첫 음절의 말음인 *m*과 가능한 음절말 자음군 *mp*를 형성할 수 있고, *per.vert*의 경우 *rv*가 가능한 음절말 자음군이기에 때문에 각각 음절말 자음군을 최대화시킨 *comp*, *perv*가 축약형으로 사용된다 (Borowsky 1986; Giegerich 1992; Harris 1994; Carr 1999 참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con.ver.sa.tion*의 경우 *nv*가 실제로 영어에서 사용되는 음절말 자음군은 아니지만 잠재적(potential) 음절말 자음군이기에 때문에 *conv*로 절단되어 사용된다.¹⁰⁾

절단법을 사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첫 음절만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 | | |
|-------------------------------------|--|
| (12) <i>puter</i> = <i>computer</i> | <i>bot</i> = <i>robot</i> |
| <i>sok</i> = <i>it's ok</i> | <i>s'up/sup/zup</i> = <i>what's up</i> |

*puter*와 *bot*은 단어의 첫 음절이 생략된 예이고, *sok*와 *s'up/sup/zup*는 문장의 첫 음절(단어)이 절단되어 만들어진 축약형들이다. 이 외에도 단어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축약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prolly*(=probably)가 이에 해당한다.¹¹⁾

3.3 혼성법(Blending)

혼성법이란 두 단어를 융합해 한 단어를 만들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어형성 방법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수사자와 암호량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liger*라고 부르는데 이는 *lion*의 첫 음절과 *tiger*의 두 번째 음절을 결합해서 만든 혼성어(blend)이다. SMS 영어에서도 혼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표현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 것들이 있다.

- | | |
|---|--|
| (13) <i>aight</i> = <i>all</i> + <i>right</i> | <i>fugly</i> = <i>fucking</i> + <i>ugly</i> |
| <i>netizen</i> = <i>net</i> + <i>citizen</i> | <i>tweenglish</i> = <i>tweens</i> + <i>English</i> |
| <i>blog</i> = <i>Web log</i> | |

*aight*는 *all*의 첫 모음과 *right*의 운모(rhyme)인 *ight*를 결합해서 만든 것이고, *fugly*는 *fucking*의 첫 음절과 *ugly*의 두 번째 음절을 결합해서 만든 형태이다. *netizen*은 *net*의 *ne*와 *citizen*의 *tizen*이 결합된 것이며, *tweenglish*는 *tween*과 *glish*를 합하여 만든 것으로

10) *conversation*은 *convo*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conv*에 지소접미사(diminutive suffix)인 *-o*가 첨부된 것이다 (Wiktionary 참조).

11) <http://www.wordnik.com/words/prolly> 참조.

볼 수 있다. 이처럼 혼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첫 단어의 첫 음절과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blog처럼 첫 음절의 음절말 자음이 두 번째 단어와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혼한 방법은 아니다.

3.4 의성어/의태어 (Onomatopoeia/Mimetic Word)

의성어나 의태어도 SMS 상에서 종종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4) zzz	bling(-bling)
grrr	argh
poof	whoa
ugh	mmk

위 예들 중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zzz로 이것은 ‘졸림, 피곤함, 지루함’을 나타낸다. bling(-bling)은 보석이나 귀금속의 반짝임을 연상시키는 소리로써 ‘부유함, 값비싼 악세서리’를 의미한다. ‘빛나다, 반짝이다’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단어 blinken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grrr은 ‘불안, 우려 또는 친밀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로 growling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argh는 ‘울음’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18세기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아래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짜증, 경악, 당황 또는 좌절’을 나타낸다.

(15) Argh! It's already 7:15! We're never gonna make it!

한편 poof는 원래 ‘무엇인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의성어인데,¹²⁾ SMS상에서는 ‘안녕(good bye)’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whoa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ugh는 ‘역겨움’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1822년부터 그 사용 기록이 남아있다. mmk는 ‘ok’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얼거림(mumble)’과 ‘ok’의 ‘k’를 결합해서 만든 소리로, 아래 대화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무성의한 동의(distracted affirmation)’을 나타낸다.

(16) A: Could you do this for me?

B: Mmk...

12) The magician waved a wand, and poof! The birds disappeared!

(<https://www.wordnik.com/words/poof>)

3.5 그 외의 방법

지금까지 SMS상에서 사용되는 영어표현들의 형태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여러 형태의 표현들이 SMS상에서 대화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기호(symbol)의 사용이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7) ? = question @ = at
 O = hug X = kiss
 xD = laugh out loud

O는 ‘포옹’을 나타내고 X는 ‘입맞춤’을 나타내는데, 이 동작의 반복은 xoxoxo처럼 표현한다. xD는 미국 아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자주 쓰는 말인 ‘:), :(, =)’ 등과 같이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 :(, =)’가 ‘그냥 웃는 것’을 표현한 반면에 xD는 ‘lol’과 비슷하게 ‘크게 웃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서 x는 ‘X형태의 눈’을 나타내고 D는 ‘활짝 벌린 입’을 나타낸다 (Naver 사전 참조).

3.1에서 숫자가 한 음절이나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예, 2 = to, too; 4ever = forever). 그런데 SMS상에서 숫자의 사용은 단어의 범위를 넘어서서 구나 문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8) 88 = bye bye 86 = out of, to get rid of
 143 = I love you 1437 = I love you forever

먼저, 88의 사용은 그 유래를 중국어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표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어로 숫자 8이 ‘ba1’로 발음이 되며, ‘88(ba1 ba1)’을 발음할 경우 영어의 ‘bye bye’와 매우 유사한데서 88이 ‘안녕(bye bye)’의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86이 ‘out of, get rid of’의 뜻으로 사용된 유래는 1920~30년대 미국의 금주법(Prohibition) 시행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뉴욕의 유명한 주류 밀매점인 Chumley’s가 Bedford St. 86번지에 있었는데, 경찰의 단속이 있을 때마다 경찰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은 바텐더가 “86 everybody!”라고 소리치면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86 Bedford 출입구를 통해서 달아난 데서 유래한다. 86이 사용되는 예로는 “86 that light.”, “Everyone in Sales got 86’d.”를 들 수 있다. 한편 143과 1437은 단어의 철자 수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표현들이다. 먼저 143은 ‘I love you’에서 각 단어 ‘I,’ ‘love,’ ‘you’의 철자 수를 나타낸다.¹³⁾ 그리고

13) Soul Food라는 영화에 나왔던 R&B 그룹인 Milestone의 1집 앨범 Le Premier Pas에 143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음.

1437에서 7은 ‘forever’의 글자 수를 나타낸다.¹⁴⁾

SMS상에서 신조어(Neologism)가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정적이거나 선정적인 글 및 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troll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Naver 사전 참조). 또한 인터넷 상에서 ‘own’이라는 단어 대신에 ‘pwn’이라는 속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유래는 WarCraft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맵디자이너(map designer)가 ‘own’이라는 단어를 ‘pwn’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 오늘날 인터넷 게임에서 ‘-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다, (어떤 방법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좋다’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다 (Naver 사전, Wikipedia 참조). 그 용례로는 “I pwn these guys on battlenet.”, “This strategy pwns!” 등이 있다.

이 외에도 ‘hella’와 같은 환칭(Antonomasia)이 사용되는데, ‘hella’는 San Francisco의 Hunters Point 지역에 있는 거리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really’나 ‘very’ 대신에 흔히 사용된다.¹⁵⁾ 은유법(Metaphor)도 또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floor(=laughing),’ ‘chicken(=scared)’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형태는 바꾸지 않고 품사만 바꾸어 쓰는 전환(Conversion)도 나타나는데, 주로 명사를 동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Katamba & Stonham 2006:120; Kang 2007, 2010 참조). 예를 들면, 명사인 Google을 ‘Google로 검색하다’라는 동사로 활용하거나, 명사인 YouTube를 ‘YouTube에 (동영상 등을) 올리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활용한다. 또 아래의 대화에서처럼 사람의 이름을 동사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19) James: Words of a wise man.

Brian: Yes sir. Relax bro. Life’s too short.

James: Amen. I’ll try my man.

Brian: You better or I’ll *jackie chan* your ass.

Jackie Chan은 무술이 뛰어난 홍콩배우의 이름으로 (19)의 대화에서는 이것이 ‘세계 때리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전환되어 사용된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SMS 상에서 사용되는 영어 약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14) 이처럼 단어의 철자 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은 한국의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네티즌들은 ‘사랑해’를 ‘486’으로 나타낸다.

15) 예를 들면, “The Fillmore is *hella* better than the Mission.”

같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어는 두문자어로 전체 조사된 자료 중에 92.49%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절단법이며 그 뒤를 의성어/의태어와 혼성법이 잇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두문자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약어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고 좀 더 신속하게 정확한 의미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통계 분석결과가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료 수집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MS에 나타나는 약어들의 형태론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두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철자나 숫자의 발음도 자주 사용되며, 단어의 음절 초성이 사용되기도 한다. 철자 발음, 숫자 발음, 음절의 첫 소리의 사용은 일반적인 어형성 과정의 두문자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SMS 약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절단법의 경우, (12)의 예처럼 첫 음절이 절단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첫 음절을 남기고 나머지를 절단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이 때 음절말음 최대화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혼성법은 일반적인 어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타 소수의 SMS 약어는 의성어, 의태어, 기호, 숫자, 신조어, 전환 등의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애초에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약어들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각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작은 키패드를 여러 번 눌러야 했고, 문자메시지가 160글자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문자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어의 사용은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지만 최근에는 휴대폰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기성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채팅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새로운 인터넷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어들이 종종 새로운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옥스퍼드 영어온라인 사전은 'OMG', 'LOL' 등과 같은 다수의 약어들을 새로운 단어로 추가하였다. 지나친 인터넷 용어의 사용은 언어를 오염시키고 세대 간 또는 집단 간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용어의 올바른 사용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의사전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인터넷 용어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Anjaneyulu, T. (2013). A glossary: Usage abbreviations of mobile phone SMS.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70(2), 141-171.
- Borowsky, T. (1986). *Topics in the lexical phonology of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 Carr, P. (1999).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An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Ltd. Oxford, UK.
- Carstairs-McCarthy, A. (2002). *An introduction to English morph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Ltd., Edinburgh, UK.
- Giegerich, H. J. (1992). *English phonology: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Harris, J. (1994). *English sound structure*. Blackwell Publishing Ltd. Oxford, UK
http://en.wikipedia.org/wiki/Short_Message_Service
- Kang, S.-K. (2007). Zero derivation in English: Base-identity and constraint. *언어학* 5(4), 77-96.
- Kang, S.-k. (2010). Typology of conversion: An OT perspective. *언어학* 18(3), 37-55.
- Kang, S.-K. & S.-K. Yang. (in preparation). A phonological analysis of English SMS abbreviations.
- Katamba, F. and J. Stonham. (2006). *Morphology*.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Kumar, N. (2012). A linguistic study of abbreviations in SMS. *Language in India* 12(6), 271-286.
- Matthews, P. H. (1991). *Morpholog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Plag, I. (2003).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 Holland, Dordrecht, The Netherlands.

강석근

570-74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10-8850-6914, 063-850-6914
이메일: skkang@wonkwang.ac.kr

양선기

540-950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화: 010-3620-3328, 061-750-3328
이메일: ysk@sunchon.ac.kr

Received on March 31,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y 28, 2015

Accepted on June 25, 2015